NEAC 국민경제자문회의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11.2.(월) 14:00 배포 2026.11.2.(월) 08:00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넘어 국가 산업전환 및 성장 플랫폼으로

- 국민경제자문회의, 「3대 메가프로젝트: 국가 성장 플랫폼이 되기 위한 과제」 공개포럼 개최 -

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 김성식)는 11월 2일(월) 오후 2시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국가 성장 플랫폼이 되기 위한 과제」 공개포럼을 열고,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방안과 보완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 헌법 제93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의장: 대통령)

이번 포럼은 6월 말 정부 발표 이후 투자 규모와 입지에 쏠렸던 논의의 초점을 산업 생태계와 현장 활용으로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기조발표에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 7인이 발표와 토론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산업전환과 성장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분야별 해법을 내놓았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이후 우리 경제와 산업의 틀을 바꾸는 가장 큰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투자 규모와 팹을 어디에 짓느냐에 논의가 쏠렸다며, 이제는 국가 성장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논의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이를 위한 과제로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시스템 반도체와 차세대 칩 설계 역량을 키우고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스타트업이 함께 크는 반도체 생태계 강화, △제조 현장에 쌓인 장인의 숙련과 데이터를 지키고 AI로 잇기 위한 현장 데이터 권리 보상 제도화와 지역 대학을 통한 숙련 전수, △오랫동안 지체된 송전망 등 인프라 병목 타개를 제시했다.

아울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열린 지금 제도·인프라·인재·기술혁신의 병목을 극복할 전략 보완과 실행계획 수립, 협업과 속도전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메가프로젝트 : M·E·G·A」를 주제로 발표하고, 1,6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실행전략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먼저 '메가프로젝트'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메가(Mega)'는 전례 없는 투자 규모와 대한민국 산업이 맞이한 역사적 기회를 상징한다. 총 1,60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은 사업 착수연도 GDP 대비 약 60%에 달하며, 이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투자 규모(GDP 대비 2.4%)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준이다. 김 장관은 AI 혁명으로 모든 국가가 새로운 출발선에서 경쟁하게 된 지금이 대한민국이 미래 글로벌 산업의 선도자로 도약할 결정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막대한 부지와 전력 등 새로운 산업 기반을 필요로 하는 AI 산업의 특성이 지역 성장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젝트(Project)'에는 민간 주도의 투자와 이를 반드시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실행 의지가 담겨 있다. 이번 1,600조 원은 정부 재정이 아닌 민간의 투자계획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기업 투자가 속도감 있게 집행되도록 걸림돌을 제거하고 필수 인프라와 제도를 뒷받침하는 데 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팹 가동을 2년 이상 앞당기기 위해 인허가 일괄 처리와 초광역특구법 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번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전략으로 '반도체·AI 데이터센터(AIDC)·피지컬 AI'를 연결하는 국가 성장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반도체가 AI 연산 능력을 공급하고, AIDC가 AI의 학습과 활용을 뒷받침하며, 피지컬 AI가 이를 제조 현장에 적용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구조다. 세 축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 반도체와 AI 인프라 투자가 산업 전반의 제조 혁신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첨단 기술과 미래 산업에 대한 재투자로 확산되는 선순환 생태계가 완성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성장 플랫폼을 구체화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으로 'M·E·G·A'를 제시했다. △첫째, M(Mobilize)은 정부·민간·학계의 자금, 인프라, 인재 및 혁신 역량을 결집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정부 교체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국가 역량의 결집'이다. △둘째, E(Engage)는 산업계·노동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메가프로젝트의 주체로 참여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는 것이다. M과 E를 통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셋째, G(Generate)는 새로운 산업과 성장동력을 창출해 지역 성장과 수출 확대로 이어가며, △마지막으로 A(Amplify)는 그 성과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더 큰 성장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이를 통해 'MEGA 프로젝트'가 'MEGA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발표 세션 】

먼저 **이준 산업연구원 전략산업연구센터장**은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향」 발표에서 메가프로젝트를 AI 생태계 핵심 병목을 전략적으로 선점하기 위한 승부수로 평가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HBM(AI용 고대역폭 메모리) 점유율 80%대에 육박하는 메모리반도체 최강국이지만 세계 반도체 시장의 76%를 차지하는 비메모리 부문에서는 존재감이 약하고, 메가프로젝트의 반도체 민간투자 881조원도 메모리 분야 생산능력 확충에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또 '19년 발표한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이 R&D·시제품 등 공급 측 지원에 치중해 국산 칩을 채택할 앵커 수요처 확보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커스텀 HBM, 칩렛(여러 칩을 블록처럼 조합하는 기술), 이종집적(서로 다른 칩을 하나로 묶는 기술)이 확산되면서 메모리와 로직(연산용 칩)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이 메모리 강점을 시스템반도체로 넘어가는 다리로 쓸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550조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와 로봇·자동차·조선 등 피지컬 AI 분야가 칩 수요를 만들어 내는 만큼, 메가프로젝트를 반도체 공급과 수요를 묶는 장치로 설계하면 '19년에는 없던 수요 기반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Mega 팹'을 넘어 'Mega 생태계'로 정책 목표를 재구성하고,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생태계 기여를 교환하는 'K-Chips Deal', △4대 핵심 제품군별 전담 책임자를 두는 'BIG 4 짜르(Czar)', △첨단·미들 공정 파운드리를 이원화하고 소부장·후공정 혁신을 지원하는 '한국형 반도체 혁신 허브(K-IMEC* & K-Foundry)', △산업계가 투자기업을 선별하는 '산업금융플랫폼' 등 메가프로젝트가 만드는 수요를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전달하는 4대 정책 브릿지를 제안했다. 아울러 반도체특별위원회 내 비메모리·소부장 전담 분과 신설과 반도체 특별회계 내 최소 배분 비율 적용 검토 등 거버넌스 보완도 주문했다.

* IMEC: 벨기에의 세계적 반도체 공동연구기관으로, 기업·대학이 함께 차세대 기술을 연구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거점

두 번째로 **박민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은 「제조업 AX(M.AX) 가속화를 위한 피지컬 AI 전략」을 발표하고, AI 투자의 성과가 대한민국 제조업에 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빅테크와 로봇 기업들이 제조기업과 손잡고 공장 데이터와 작업 노하우를 AI 학습 자산으로 축적하고 있다며, 공정 조건·불량 원인·숙련자의 판단이 외부 학습 자산으로만 쌓이면 국내 AI 모델 고도화와 공급자 전환의 주도권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총장은 숙련을 학습 자산으로 만들되 그 주인은 기업이 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의 저장 위치·재학습·재사용 범위와 계약 종료 시 회수·삭제 조건을 사전에 합의하는 '제조 데이터 활용권'과 숙련자 참여에 대한 보상 체계를 제시했다. 또한 로봇도 사람처럼 교육을 거쳐야 한다며, M.AX Factory(기초 동작 학습)와 공정별 전문학습·운용 지원 단계를 거쳐 DDF(실증공장)에서 검증받은 뒤 RDF(실제 무인공장)에 투입되는 단계별 학습·실증 체계를 소개했다. 사람 곁에서 움직이는 휴머노이드의 특성상 국방 분야에 준하는 안전·보안 관리 수준을 지향하고, 핵심부품과 제어체계를 국내에서 검증·통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아울러 △제조 데이터 활용권, △학습에서 생산 실증까지, △휴머노이드 소부장 육성, △전국 자원·인재 연결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액추에이터(로봇 관절을 움직이는 구동장치)·감속기·센서·제어기 등 핵심부품을

AI 반도체 육성에 상응하는 규모와 지속성으로 지원하고, 숙련자와 지역대학, 청년 창업을 잇는 다크셀*을 통해 장인의 기술을 잇고 청년의 제조 창업을 여는 구상을 밝혔다.

* 다크셀(Dark Cell): 공정별 로봇·설비와 운영 소프트웨어를 묶어 창업팀이 함께 쓰는 공동 실증 단위

마지막으로 **정병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산능력에서 생산성으로: AI 에이전트 시대의 메가프로젝트 확장 전략」 발표에서 메가프로젝트에 연산능력을 만들고(반도체) 나르는(데이터센터) 투자는 담겼지만 이를 산업 현장의 생산성으로 바꾸는 '지능화' 단계가 비어 있다고 진단했다. AI가 '말하는 AI'에서 '일하는 AI', 즉 AI 에이전트*로 옮겨 가고 있지만, 국내 기업(50인 이상)의 AI 활용률은 9.2%, AI 에이전트 전사 내재화 기업은 3.7%에 그친다는 것이다.

* AI 에이전트: 스스로 업무를 계획하고 도구를 활용해 처리하는 AI

정 교수는 우리나라가 '하드웨어 병목 강국'에서 'AI 주권 스택 통합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에이전트 확산은 즉시 추진하고 모델 주권은 꾸준히 쌓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보안 장치를 갖춘 글로벌 오픈웨이트 모델(설계값이 공개된 AI 모델) 기반 에이전트를 온프렘(기업 내부 서버) 방식으로 먼저 확산하고 국산 모델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브리지' 전략과 'AX 에이전트 성공사례 1,000' 프로그램,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3층 구조로 넓힌 '국가 AI 모델 패밀리', △제조 데이터를 외부로 내보내지 않는 학습과 기여 보상, △공공이 국산 모델·NPU(AI 연산 전용 반도체)의 첫 고객이 되고 'K-AI 풀스택' 수출로 시장을 넓히는 방안, △3대 프로젝트를 가로지르는 'AI 모델·에이전트 연계축'과 '국가 AI 역량 스택 대시보드'를 제안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현재의 국내 수요 전망만으로는 '35년 18.4GW 목표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앵커 고객(장기 사용 계약을 맺은 핵심 고객) 계약 등으로 확정된 수요는 전체 계획의 12.5%(약 2.5GW) 수준이라는 분석을 근거로 들었다.

정 교수는 목표를 채우려면 국내 에이전트·제조 AI 확산을 앞당기는 정책과 함께 앵커 고객이 있는 해외 수요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1단계('29년까지 8.4GW)는 확실한 수요를 중심으로 짓고, 2단계('35년까지 10GW 추가)는 앵커 고객과 전력망 연결이 확보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승인하되 일정 기간 안에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지·전력 배정을 회수하는 집행 원칙을 제안했다. 아울러 컴퓨팅 자원을 보유에서 활용 중심으로 바꿔 활용률 KPI(핵심성과지표)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패널토론 세션 】

이근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공경철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윤대균 아주대학교 인공지능연구원장, 백서인 한양대학교 ERICA 글로벌문화통상학부 부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실행과 함께, 성과를 내려면 산업 생태계·수요·활용 계획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건수 부회장은 반도체 시장이 기술 선도와 적기 양산, 고객 확보가 맞물려 선도기업의 우위가 누적되는 '승자독식' 구조라며, 프로젝트의 성패는 발표된 투자 총액보다 실제 투자 착수·팹 가동·국내 공급망 채택이 계획된 시점에 이루어지는지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생산시설 적기 착공과 전력·용수 선제 공급, △서남권(메모리·제조)·충청권(첨단 패키징)·대경권·동남권(소부장) 지역 거점 특화와 연계, △소부장 기술개발부터 양산 채택까지의 사업화 지원, △단계별 전문인력 확보, △범부처 실행관리 체계 구축을 제언하고,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을 담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공경철 교수는 피지컬 AI가 휴머노이드 하나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며, 논밭을 매는 농업 로봇, 인명 구조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을 품는 생태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메가프로젝트 구상에서 피지컬 AI는 특화 휴머노이드와 핵심부품 국산화로만 정리돼, 액추에이터·제어 같은 실행 계층과

물리 데이터, 첫 수요처가 비어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가 연산능력을 만들듯 액추에이터와 제어 기술이 물리능력을 만든다며, 두뇌는 교체할 수 있지만 몸(실행 계층)과 그 몸이 측정한 데이터는 국가 자산이라는 원칙에 따라 액추에이터-제어기-AI 모델 간 공통 인터페이스의 국가 규격화와 물리 데이터(힘·촉각 등 로봇이 직접 측정한 데이터) 생산 인프라에 대한 선행 투자를 제안했다. 또 초고령사회의 확실한 수요인 의료·재활·돌봄 분야에 의료기기 인허가 신속 심사·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공공 선구매를 묶은 '피지컬 AI 의료·돌봄 트랙' 신설을 제언하며, 국가는 가장 어려운 기술을 가장 쉽게 쓸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 깔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대균 원장은 AI 데이터센터(AIDC)가 반도체·피지컬 AI·AI 활용 수요가 만나는 공통 기반이라며, AIDC를 짓는 계획에 그 시설을 운영하고 활용하는 계획이 더해져야 18.4GW가 국가의 AI 역량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18.4GW 목표가 국내 수요 추정이 아니라 아태 지역 점유율 25% 목표에서 나왔고, GW급 시설을 해외 임차인이 자기 기술로 운영하면 대규모 운영 역량이 임차인에게 쌓인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AIDC 수요를 △국가 필수 수요, △산업 AX 수요, △해외 임대 수요 등 세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 지원 방식과 전력 계획 반영 기준을 달리하고, 국민성장펀드·인허가·전력 지원을 연산 선구매와 연계해 국가 필수·산업 AX용 연산을 확보하되 그 운영은 국산 기술이 맡는 제도를 제안했다. 토큰(AI가 처리하는 데이터 단위) 처리량·시설 가동률·국산 반도체 활용 비중 등 활용 지표를 구축 지표와 함께 관리하고, 국산 장비의 하이퍼스케일러(글로벌 대형 클라우드 기업) 공급망 단계별 진입 지원과 '소버린 AI(주권형 AI) 풀스택 얼라이언스' 설립도 제안했다.

백서인 부교수는 수요 연계형·생태계 중심형 정책과 K-IMEC 설립 등에 동의하면서도, 이와 같은 전략이 그동안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대만·일본·독일·네덜란드 등 중견 반도체 국가들도 같은 전략을 추진하는 만큼, 우리 제안이 대만보다 얼마나 매력적이고 현실적인지 따지는 글로벌 경쟁전략 관점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AI 투자 열기 감소 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를 뛰어넘는 전략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십 년 만의

호황을 지속가능한 경쟁력으로 바꾸는 반도체 전략은 기업과 산업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여야 한다고 밝히고, △사라지면 경제안보 위기를 부르는 소부장 강소기업 보호,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과 맞물리는 한국형 '사이언스 리쇼어링', △주요 제조 강국과의 안전·표준 공동 수립을 제안했다. 아울러 신속함과 과감함을 추구하되 집행의 단계화와 중단 조건 등 점검 장치를 함께 갖출 것을 주문했다.

※ 포럼 자료집은 국민경제자문회의 홈페이지(보도자료/공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1.2.(월) 14:00 게시 예정]

◇ 해당 발표내용은 발표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자료 내용은 편의상 제공되는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현장의 발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사 개요
2. 개회사

담당 부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경제안보팀	책임자	팀 장	이상홍	(02-731-2440)
		담당자	사무관	이서연	(02-731-245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행사 개요

□ **(행사명)** 「3대 메가프로젝트: 국가 성장 플랫폼이 되기 위한 과제」 공개포럼

□ **(일시·장소)** 2026.11.2.(월) 14:00-17:00, 페럼타워 페럼홀(3층)

□ **(주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 **프로그램**

구분	시간		내용
개회사	14:00-14:05	5′	•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기조 발표	14:05-14:25	20′	• 메가프로젝트: M·E·G·A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발표 세션	14:25-14:45	20′	• (발표 1)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향 - 이준 산업연구원 전략산업연구센터장
	14:45-15:05	20′	• (발표 2) 제조업 AX(M.AX) 가속화를 위한 피지컬 AI 전략 - 박민원 창원대 총장
	15:05-15:25	20′	• (발표 3) 연산능력에서 생산성으로 : AI 에이전트 시대의 메가프로젝트 확장 전략 - 정병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휴식	15:25-15:35	10′	
토론 및 질의 응답	15:35-17:00	85′	• (좌장) 이근 중앙대학교 석좌교수 • 패널 토론 -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 공경철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 윤대균 아주대 인공지능연구원장 - 백서인 한양대 ERICA 글로벌문화통상학부 부교수

붙임 2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성식입니다.

오늘 「3대 메가프로젝트: 국가 성장 플랫폼이 되기 위한 과제」 공개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기조발표를 맡아 주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셨던 이근 석좌교수님,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현장과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말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이후 우리 경제와 산업의 틀을 바꾸는 가장 큰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규모에 초점이 맞춰졌고, 또 팹을 어디에 짓느냐에 논의가 쏠렸습니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로 제시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이제 그런 차원을 넘어서, 국가 성장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논의로 발전해야 합니다. 성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본질적인 것을 보아야 하고 시급한 것을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먼저, 반도체 팹 증설을 넘어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키우는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소재 · 부품 · 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함께 가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를 키울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면서도 더 큰 시장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고, 차세대 칩을 디자인하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대기업이 소부장 기업, 스타트업과 함께 크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제조 현장에 쌓인 장인의 숙련을 지키고 AI로 잇는 것이 피지컬 AI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지체시키는 병목들을 속히 해소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그런데 제조 현장은 빠르게 나이 들어가고, 청년 세대는 그 숙련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테크 기업들이 이미 우리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암묵지와 제조 데이터가 곧 AI 시대의 최전선입니다. 현장 데이터의 권리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AX 활용과 보안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만들고, 지역 대학과 함께 제조 현장의 숙련과 노하우가 청년에게 전수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아울러, 3대 메가프로젝트는 오랫동안 지체되어온 전력 송전망을 비롯한 인프라 병목을 획기적으로 타개하는 우리 모두의 기약이 될 때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10월 28일 이 주제로 이미 공개포럼을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에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열린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는 반도체와 AI 생태계의 질적 도약을 이루고, 넥스트 산업 엔진까지 점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제도의 병목, 인프라의 병목, 인재의 병목, 기술혁신의 병목을 극복할 전략 보완과 실행계획 수립, 그리고 그 협업과 속도전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합니다. 이것이 제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성장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취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그 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